

광양시, 탄소중립 실천 위한 UP 사이클링 수강생 모집

업사이클 교육 통한 녹색생활 실천 생활화

광양시와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가 오는 28일까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 UP 사이클링 교육참여자 150명을 모집한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이나 버려지는 자원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8월 2일~9

월 1일 화, 목요일 2시간씩 10차례에 걸쳐 무료로 운영되고 일부 프로그램은 재료비 일부가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운영 프로그램은 ▲다시 쓰는 보자기 ▲꽃 그림으로 새활용 우드스푼 만들기 ▲콜라보 가죽공예 ▲페유리 조각을 활용한 모자이크 공예 ▲유리병의 변신-마크라메 유리병 조명 ▲업사이클-천연 모기퇴치 향

초 만들기 ▲페트병 업사이클 정리수납함 만들기 ▲글라스 아트 무드등 만들기 ▲양말목 업사이클 다용도 소품 만들기 ▲청바지 리폼 등이다.

시는 업사이클링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버려지는 자원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원순환에 기여해 재사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허형채 (사)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 실

천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업사이클을 실천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일상생활속에서 쉽게 버려지는 물건이 의미 있는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보호의 가치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순천,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 수강생 모집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과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미래 정원문화와 산업을 선도할 정원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을 운영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교육 심화과정으로, 정원관련 분야 전공자 및 종사자, 시에서 운영하는 RHS(영국왕립원예협회), 전라남도 정원전문가 등 정원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 하반기 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2개 과정으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과정별 각 25명을 모집해 8월 24일부터 15주간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존 가든 마스터 수료조건은 출석과 평가결과로 수료가 가능했으나, 이번 하반기 교육부터는 8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을 수료조건에 추가함에 따라 교육생들의 현장 활동성 강화를 도모했다.

교육희망자는 경력 및 수료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시 정원산업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든 마스터 양성교육은 ▲정원조성 및 관리반 ▲정원문화 코디네이터반 ▲정원용 소재생산반 ▲정원디자인반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4개과정을 모두 수료할 경우 정원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순천시 인증 가든 마스터 증을 수여받는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가든 마스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정원문화와 산업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정원교육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원산업과(061-749-27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유빈 기자

구례, 농촌에서 살아보기 2기 참가자 6세대 모집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8월 12일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2기) 참가자 6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영마을은 구례군 마산면에 위치한 지리산효장수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올해 1기(6세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참가해 수료를 마쳤고, 2기는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참가자는 9월부터 최대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농촌과 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영농실습 교육 등 '귀촌형' 연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참가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급된다.

참가신청 자격은 전남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시민이며,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동)지역 거주민이면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 좌측 상단에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배너를 클릭하고 원하는 지역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귀농·귀촌을 실행하기 전 농촌생활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3개월 동안 지역을 탐색하고 마을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귀농·귀촌을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건섭 기자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인식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소유자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와 함께 반려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등 성숙한 반려 동물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물 등록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지역 내 동물 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 후 되찾음, 무선 개체 식별 장치 분실 등)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소유자

가 변경됐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을 방문해야 하며 그 외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심건섭 기자

여수시, 코로나19 '4차 접종' 확대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질병관리청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4차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 연령층까지 접종 대상이 확대된다.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장애타입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해서도 접종이 실시된다.

기저질환은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경계질환, 자면역질환, 암, 당뇨병, 비만 등으로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은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3가지 중 선택해서 접종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해야 접종 가능하며, 기 확진자의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사전 예약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ncvr.kdca.go.kr)이나 콜센터 1339, 여수시 예방접종 콜센터(061-659-5630)에서 할 수 있다. 단, 당일 접종은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사전 연락해 잔여 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18일부터 여수시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예약 접종은 8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초접종(1, 2차)만 완료하는 경우보다 추가접종(3, 4차)을 할 경우 더 높은 면역력을 기대할 수 있다. 확진 이력이 있더라도 접종대상군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3, 4차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유빈 기자